



“의리 형 보고 있죠”



한국시리즈 4경기 무실점 활약 KIA 광도규 4차전 이어 5차전 '이의리 세리머니' 눈길 이의리 “건강하게 돌아와 왕조 함께 하고파”

KIA 타이거즈 통합 우승의 '숨은 공신'은 2년 차 투수 광도규였다.

지난해 공주고를 졸업하고 프로 무대에 뛰어든 광도규는 2024시즌 KIA 불펜의 핵심 멤버로 성장했다.

지난 시즌 14경기에서 11.2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지만 올 시즌에는 71경기에 나와 55.2이닝을 던지면서 마운드 한 축이 됐다.

당당히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등록된 그는 '경험 없는 어린 선수'라는 우려의 시선을 지우고 4경기 나와 4이닝 무실점이라는 성적표를 남겼다.

처음 경험하는 한국시리즈라는 큰 무대에서 '세리머니'까지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지난 26일 대구에서 진행된 4차전에서 광도규는 9-2로 앞선 8회말 구원 투수로 등판했다. 광도규는 1사에서 이병헌에게 우전 안타는 맞았지만 8구 승

부 끝에 디아즈를 상대로 1루수 앞 땅볼을 유도했다. 공을 잡은 1루수 변우혁이 2루로 송구에 아웃 카운트를 만든 뒤 다시 공을 넘겨받으면서 병살타가 기록됐다. 광도규는 이날 마무리된 순간 모자를 왼쪽으로 돌려쓰는 세리머니를 했다.

광도규는 상대를 자극하기 위한 세리머니가 아니라 부상으로 함께하지 못한 선배 이의리를 위한 세리머니라고 설명했다.

광도규는 “모자에 의리형 번호(48)가 쓰여 있는데, 그쪽으로 모자를 돌렸다. 의리 형이 48번 세리머니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나온 것 같다. 앞에 우혁이 형이 보였는데, 그런 이미지가 있어서 연상이 됐던 것 같다”고 밝혔다.

광도규는 28일에는 유니폼 안에 이의리의 이름이 쓰인 옷을 입고 출격했다. 그리고 6회를 무실점으로 처리한 뒤 유니폼 상의를 펼치면서 다시 한번 이의리를 위한 세리머니를 했다.

이번에는 준비된 세리머니까지 하면서 큰 무대를 즐긴 광도규는 “공을 던질 때는 안 떨린다. 잘 때 제일 많이 긴장된다. 자기 전에만 긴장되고 그라운드 에 나가는 순간부터 집중된다”며 ‘강심장’의 모습을 보여줬다.

자신감 있는 피칭으로 마운드를 지킨 광도규는

박찬호가 꼽는 올 시즌 KIA 우승 주역이다.

박찬호는 “야수 김도영, 투수 광도규가 우승의 수훈 선수다. 도영이랑 도규는 우리 구상에서 이 정도까지 할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선수다. 도영이는 물론 언젠가 이런 성적을 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당장 올해 이렇게 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했나”라며 “도규도 확 튀어나왔다. 정말 선물 같은 존재들이다. 올 시즌 기대치 이상의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 많은 이닝하면서 중간에 잠깐 흔들렸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잘 던졌다. 꾸준하게 자리를 지켰다”고 광도규의 활약에 박수를 보냈다.

한편 광도규의 세리머니의 주인공 이의리는 건강하게 돌아와 후배들과 왕조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의리는 “4차전 끝나고 와서 도규랑 밥을 먹었다. 세리머니를 해주서 고맙다”며 “도규는 금강한 것도 많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선수다. 조금 독특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모두에게 힘을 주는 것 같고 그렇다. 좋은 후배를 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왼쪽 팔꿈치 내측 인대 재건술과 뼈조각 제거 수술을 받았던 이의리는 현재 캐치볼을 하면서 내년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이의리는 “한국시리즈에서 함께 하지 못해서 많이 아쉽다. 지금 빨리 시작하는 만큼 중간에 한 달 정도 아예 쉬 계획도 있다. 1년 정도 잘 준비해서 6월 말에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왕조 기틀이 만들어졌지만 내가 더 만들어야 한다. 건강하게 복귀해 동료들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장애인사격 ‘세계신’ 쫓았다

장애인체전 혼성 10m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 금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사격팀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빛 총성과 함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지난 26일 혼성 10m공기소총 입사 R4 단체전 SH2에 출전한 광주장애인사격팀(김근수, 박동안, 박승우, 임주현)이 총점 1902.2점을 따내며 금메달을 합작했다.

김근수가 633.2점, 박동안이 631.9점, 박승우가 635.2점, 임주현이 633.8점을 쏴 2위(경기)와 11.2점 차이로 당당히 정상에 올랐다.

이는 2023리마장애인사격세계선수권대회에서 프랑스 팀이 세운 세계 신기록(1898.3점)을 3.9점 차로 1년 만에 경신한 것이다.

이들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지난 27일 혼성 10m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전 SH2 대회에서는 총점 1907.9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세웠고, 28일 마지막 단체전인 혼성 50m소총 복사 R9 단체전 SH2에서는 총점 1857.4점으로 우승하며 ‘사격 최강팀’임을 입증했다.

지난 2023년 ‘제43회 대회 혼성 10m공기소총 복사 R5 단체전 SH2’에서 1907.8점을 기록해 대회 신기록과 함께 1위를 차지했던 이들은 0.1점차를 만들며 스스로의 기록을 썼다.

광주사격팀의 다음 목표는 ‘개인전 올림픽’이다.

박승우, 박동안, 임주현은 28일 혼성 50m소총 복사 R9 개인전 SH2 경기에 출전해 각각 1, 2, 5위에 올랐다.

먼저 마지막 발을 쏜 박동안이 248.5점으로 대회 신기록을 수립했고, 뒤이어 박승우가 249.8점으로 다시 대회 신기록을 갈아치워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승우는 26일 혼성 공기소총 입사 R4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추가했다.

지난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출전했던 박동안은 “감사하게도 금메달을 여러번 획득할 기회가 주어졌다. 앞으로도 우리가 세운 기록들을 깨나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며 “다음 목표는 우리 팀 선수들이 개인전에 나가 1-3위를 모두 휩쓰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번 대회는 못했으니 내년 45회 대회에는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적 사수’인 이들은 “만점을 쫓을 때 그 쾌감, 손맛이 사격의 매력이라고 생각한다. ‘경쟁’에 집중하지 않고 나를 믿고 서로를 믿다보니 자연스럽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선수로도 등판한 김근수 감독은 2016-2022년 광주시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광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장애인사격팀이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금빛 총성과 함께 세계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왼쪽부터 임주현, 박승우, 박동안.

사격팀 선수로 활발히 활동 후 지난 2023년 사령탑으로 선임됐다.

선수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이해할 수 있다는 김 감독은 “감독을 맡은 후 박동안·임주현·박승우 선수를 직접 영입해 왔다”며 “시작부터 성적이 너무 좋아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이 심했다”고 입을 폈다.

그는 “선수들이 감독을 잘 믿어주고 서로 의기투합하면서 1년 동안 준비한 결과 세계 신기록을 비롯해 개인·단체전 메달로도 이어졌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감독으로서 늘 ‘팀워크’를 강조한다고 밝힌 그는 “이 팀워크를 기반으로 동계 훈련 열심히 해서 우리 선수들이 모두 태극마크를 달고 메달을 목에 걸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해 글·사진=서민경 기자 minky@



구례군청 발달공씨름단 이세미가 지난 26일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끝난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제4회 안산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에서 국화장사에 등극했다. <구례발달공씨름단 제공>

구례군청 이세미 또 ‘장사’ 등극

안산김홍도여자장사씨름 국화급 1위...최희화 ‘무궁화급’ 3위

구례군청 발달공씨름단 이세미가 인생 두 번째 황소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구례군청 이세미는 지난 25-26일 안산 와동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4 민속씨름 제4회 안산김홍도여자장사씨름대회’에서 국화급 1위를 차지했다.

지난 9월 ‘2024 추석장사 씨름대회’에서 첫 국화장사에 오른 이세미는 이번 대회로 통산 2번째 장사에 등극했다.

국화급 8강 경기에서 권수진(거제시청)을 2-0으로 제압한 이세미는 4강에서 만난 이유나(안산시청)에 밀려치기로 첫 판 1점을 따냈지만 잡채기로 두 번째 판을 내주며 승부는 원점이 됐다.

이들은 지난 8월 ‘제16회 구례전국여자전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왕좌를 두고 결전을 벌인 전적이 있다. 이세미는 당시 국화장사 결정전에서 만난 이재하에 0-2패를 당해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세미는 장사 결정전에서 맞붙은 이재하(안산시청)의 첫 판 누적 경기때로 1점을 쟁겼지만 오금당기기로 두 번째 판을 허용하면서 동점 상황이었다. 그는 세 번째 판 잡채기를 성공시키며 2-1로 이재하를 누르고 국화장사에 올랐다. 이들은 지난 8월 ‘제16회 구례전국여자전장사 및 대학장사씨름대회’에서 왕좌를 두고 결전을 벌인 전적이 있다. 이세미는 당시 국화장사 결정전에서 만난 이재하에 0-2패를 당해 준우승을 기록했다.

이세미는 “시합 앞두고 ‘하던 대로만 하자’고 마인드 컨트롤했는데 좋은 결과 나와서 너무 기쁘다”며 “재하인만큼 시합에서 종종 경기를 했어서 이번에는 긴장이 덜 돼서 겨우 뒀다고 생각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임했다. 안주하지 않고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궁화급 경기에서도 발달공씨름단 최희화가 공동 3위로 선방했다.

최희화는 임수정(영동군청)과의 8강 경기에서 차돌기기로 첫 판 1점을 따냈고 임수정의 누적 경기때로 두 번째 판 최희화의 승이 선언되면서 2-0승, 4강에 진출했다.

그는 고산군청 임정수와의 4강 첫 번째 판에서 잡채기로 승부가 나지 않아 계체 판정을 통해 1점을 내줬고(100g 초과), 두 번째 판에서 발다리 되치기를 당하며 0-2패로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김승환 구례발달공씨름단 감독은 “최근 전국 체전이 마치고 바로 안산 대회까지 계속되는 강행군 속에서도 부상없이 잘 달려오준 선수들에게 고맙다”며 “오는 11월 열리는 마지막 영암대회까지 부상 없이 완주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출전한 구례군청 김시우는 매화급, 엄하진은 국화급, 설윤이는 무궁화급에서 공동 5위를 기록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전남 장애인역도 이종무·허명희 부부 ‘동반 메달’

전남 장애인 역도 이종무(38)·허명희(36) 부부가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청각장애 동호인부 경기에서 나란히 메달을 목에 걸었다. <사진>

지난 26-27일 진주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파워리프트 종합 OPEN(청각, 동호인부)에서 남편 이종무씨는 남자 -60kg급 스쿼트 65kg, 데드리프트 70kg, 합계 135kg을 들어올리며 종합 3위를 기록했고 아내 허명희씨는 여자 -84kg급 스쿼트 89kg, 데드리프트 105kg, 합계 194kg을 들어올려 종합 2위에 자리했다.

역도에 먼저 입문한 것은 허 씨였다. 지난 2017년 진도농아인협회 수어통역사의 권유로 우연히 역도를 시작하게 된 그는 할수록 늘어나는 무게를 들어 올린다는 쾌감에 매력에 빠졌다.

그는 지난 ‘제43회 대회’도 대표로 출전한 활약을 인정받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턴 체육선수수재

용돼 지원받고 있다.

또 진도수어통역센터 직원의 역도 부부 활동 제안에 ‘사랑의 힘’으로 역도에 도전한 이종무씨는 2023년 전남장애인체전 첫 출전에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들 부부는 “훈련할 때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지만 바벨 앞에 서면 ‘내가 잘하고 있다’는 생각에 신체적 장벽을 극복하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게 역도의 매력”이라고 입을 모았으며, 부부 선수의 장점으로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이씨는 “같이 운동하니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서로에게 자극이 돼 더 좋은 성적을 내야겠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밝혔으며, 허씨는 “혼자 선수 생활 할 때는 대회 출전 시 따로 떨어져 지내야 해 걱정이 많았다. 같이 운동하니 늘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좋다”고 전했다.



이들은 또 “거리가 멀어 목포 역도 훈련장으로 매일 다니기 힘들다. 차선책으로 진도 헬스장에서 연습하는데 전문 지도자의 부재로 체계적인 훈련이 어렵다”면서도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사랑하는 동반자와 같은 취미를 공유한다는 점이 삶에 많은 충전이 되고, 처음으로 함께 입상할 수 있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해=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